

문학 및 작가 연구와 DB의 활용 - 김수영 DB ‘별길’의 데이터 분석 사례를 중심으로*

김지아** · 김재원*** · 유시어도어준****

I. 서론

1. 디지털 국어국문학 연구의 현주소

흔히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의 구조화된 집합”으로 정의된다.¹⁾ 그러나 현재 이 데이터베이스는 컴퓨터화된 집합으로서의 의미를 초월하고 하나의

* 본 연구는 2022년 2월에 개최된 한국문학연구학회 제 102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 및 보완한 논문이다. 이 자리를 빌어 본고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고견을 아끼지 않으신 UNIST 인문학부의 이재연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제 1저자)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과정 (제 2저자)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교신저자)

1) Manovich, L. (2002). *The Language of New Media*. 서정신 옮김 (2014). *뉴미디어의 언어*.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94.

고유한 문화적 형식이자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방법론으로서 다양한 학계에서 연구되고 활용되고 있다. 인문학 역시 이러한 디지털 인문학 방법론을 채택해 교육 및 연구 분야에서 디지털적 전환을 시도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국어국문학, 특히 고전문학 분야에서는 문학 자료와 데이터베이스 형식을 융합시키는 학술적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추세다. 그 사례로 『승정원 일기』나 『고문서집성』 등 한국학 자료를 원문 그대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제공하는 ‘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를 비롯해 다양한 유형의 국내 설화 아카이브가 구축되었으며, 한국고전종합DB와 한국학종합DB 등을 통해 번역서, 외교관계사, 그리고 지리사와 관련된 복합적인 자료들이 사용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다.²⁾

이처럼 문학 정보와 자료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조화 및 모델화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과 연구는 그 자체로 각각 존재할 뿐인 거대한 양의 정보를 배열, 링크 목록, 그래프 등의 형태로 형식화하고 조직함으로써 사용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연구의 목적과 의의가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대문학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디지털적 전환에 대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대문학 분야에서 작가 및 문학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영상 및 대중문화 콘텐츠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해당 방법론을 활용한 관련 연구의 착수가 촉구된다.

2. 연구대상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모든 분야의 연구에 있어 기존 선행연구의 검토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문학 관련 연구는 특히 연구자가 본인의 분석을 전개하기 전에 관련 대상에 대한 연구 계보를 작성하는 경우도 잦고 하나의 작품이나 작가를 두고 특정한

2) 박현숙 (2019). 설화 아카이브의 현황 분석과 활용 방안. 구비문학연구, 55, 209-251.

답론 지형이 형성되기도 하며 그 답론을 두고 연구자들 간에 논쟁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특정한 문학 작품이나 작가를 연구하려는 연구자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일일이 찾고 정리하는 데에 긴 시간과 노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연구자가 논문 조회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선행연구가 누락되는 비정확성이 있고 검색망이 넓은 검색어로 검색하는 경우에는 조회되는 논문을 일일이 찾아보면서 분석 대상을 찾아봐야 하는 비효율성이 초래된다.

이에 지난 11월,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소속 연구팀에서는 김수영 문학과 연구를 대상으로 문학 DB ‘별길’을 구축한 바 있다.³⁾ 김수영 문학 연구의 경우, 연구자들이 특정 작품의 시제(詩題)를 일부 한자로 표기하거나 동일한 작품을 두고 시제를 다르게 표기해⁴⁾ 선행 연구 검색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견되었다. 이러한 문제 제기 및 필요성에 입각해 해당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사용자로 하여금 축적된 선행연구를 효율적으로 참조할 수 있는 데이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김수영의 문학⁵⁾과 관련된 연구 전반이 DB에 수록되었다. 이때 각 논문에서 연구된 김수영의 작품 목록은 주된 해당 논문에 인용되거나 분석 및 평가된 바 있는 모든 작품들이 포함되었으며, ‘별길’에서 해당 작업은 연구팀에 의해 모두 수작업으로 진행되었다.

보다 구체적인 구축 과정에 대해 설명하자면 해당 DB는 프로그래밍 언어 중 하나인 파이썬(Python) 과 구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개발환경을 제공하는 콜랩(Colab),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네오포지(Neo4j)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때 DB에 수록된 대상은 한국연구재단(NRF)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서 제공하는 검색 서비스를 통해 조회가 가능한 김수영 관련 논문 전반이었다. 즉, 제목과 키워드에 ‘김수영’이 들어가는 모든 논문⁶⁾이 해당 DB에

3) 김수영 탄생 100주년 기념 학술 대회에서 해당 구축 연구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4) 김수영의 시 「레이판 탄(1955)」을 예로 들자면, 연구자들마다 해당 작품을 각각 「네이팜 탄」, 「레이판 탄」, 또는 「레이판 彈」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발견되었다.

5) 김수영의 작품 목록은 다음과 같다: 김수영 (2018). 김수영 전집 1 시. 서울: 민음사; 김수영 (2018). 김수영 전집 2 산문. 서울: 민음사.

수록되었으며, 각각의 정보에는 논문 제목, 키워드, 학술지명, 출판사명, KCI 등재 여부, 발행 연도, 저자명, 저자 소속, 초록, 키워드, 인용 정보, URL 등이 포함되었다. 따라서 해당 DB에는 지금까지 연구된 김수영 관련 논문이 모두 수록되고 저장되었다. 나아가 이 수록된 정보 간의 관계 및 매개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특정 의미 관계와 상호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해 데이터 기술 체계 중 하나인 온톨로지(Ontology)를 선택해 해당 정보들을 그래프로 시각화해 그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정을 대략적으로 설명하자면 다음의 표와 같다.



<그림 1> 김수영 문학 연구 DB '별길' 구축 과정

3.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그러나 위처럼 단순히 어떤 데이터베이스의 구축만으로 하나의 연구 프로젝트가 끝난다면, 해당 데이터베이스는 특정한 주제 및 관심사에 대한 멀티미디어적 요소의 집합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즉, 사용자로 하여금 특정한 정보의 열람, 조회, 그리고 검색 등 최소한의 조작(Operation)만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는 엄밀히 말해 연구 방법론으로서의 데이터베이스라기보다는 아카이브(Archive), 즉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며 이를 축적해놓은 것에 불과할 것이다. 물론 일반적인 사용자라면 구축된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연구자에게는 해당 데이터베이스가 실질적으로 그 효용성과 상호작용성의 측면에서 유용한지를 비판적인 시각에서 살

6) 다만 김수영 문학의 번역과 관련된 논문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설계에 있어 중복을 최소화하는 작업인 데이터베이스의 정규화(Normalization) 문제로 해당 데이터베이스에서 제외되었다.

펴보는 후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즉, 구축된 데이터베이스가 단순히 학술적 정보 및 자료의 집합이 아닌 학술적 지식으로서 연구되고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하는 의미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장문석, 류인태(2021)는 시인 윤동주(1917~1945)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편찬 작업 후, 이러한 웹 환경이 작가 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 작업을 수행한 바 있다.⁷⁾ 구체적으로 연구자는 디지털 인문학 연구 방법론⁸⁾을 이용해 문학연구의 영역 중에서 작가 연구와 작품 연구를 구별하고, 클래스(Class), 관계(Relation), 그리고 속성(Attribution)에 대한 일련의 데이터 모델링 과정을 통해 윤동주에 관한 정보를 적절한 단위와 성격에 따라 분절하고 분류하며, 그 분절된 내용을 각각 분석함으로써 해당 방법론의 유효성을 검토한다. 이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후 그에 대한 검토 작업을 통한 연속적 연구라는 연구사적 의의가 있으며, 디지털 환경을 활용한 작가 연구 방법론을 제안한다는 측면에서 선구적인 연구로 평가된다.

이에 본 연구 역시 김수영 문학 연구 데이터베이스(이하 ‘별길’)의 구축 이후, 그에 대한 후속연구로서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연구 자료로서의 데이터베이스의 실효성을 입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는 먼저 1) ‘별길’의 데이터 사례를 먼저 제시하고, 2)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김수영 연구의 분포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관련 작가 연구의 계보 및 연구 경향을 다각도에서 분석하고 학술적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7) 장문석, 류인태 (2021). 디지털 인문학과 한국문학 연구(1) - 작가 연구를 위한 시맨틱 데이터 베이스 설계. 민족사학연구, 75, 347-4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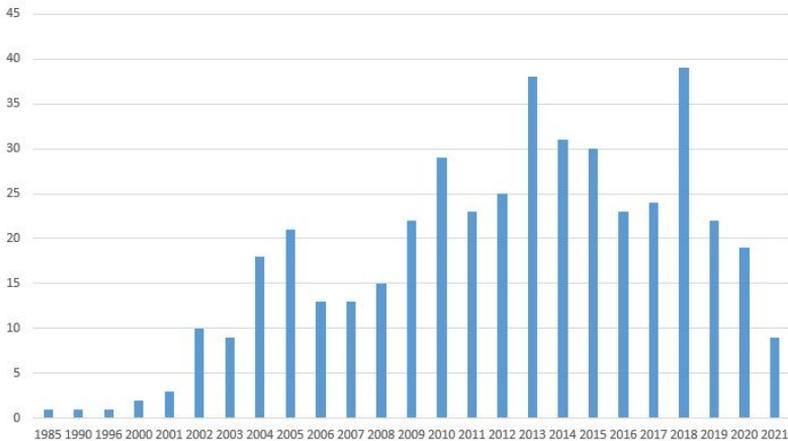
8) 위 연구의 데이터 체계는 시맨틱 데이터베이스라는 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온톨로지 어휘와 문법을 사용해 설계되었다.

II. ‘별갈’의 데이터 분석

1. ‘별갈’의 데이터 사례

먼저 김수영 문학 연구 데이터베이스 ‘별갈’에서 조회되는 데이터를 표로 그래프화한 사례를 하나 소개하자면, 이는 다음과 같다.

<표 1> 연도별 김수영 문학 관련 논문 편수 분포 표



위의 표를 참고하자면, 김수영 문학 관련 연구는 1985년부터 시작되었으며⁹⁾ 현재¹⁰⁾까지도 진행 중에 있으며 관련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연구된 시기는 각각 2013년도와 2018년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 사례를 간단하게 조회만 한다면 해당 데이터는 그저 데이터로서만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특정 데이터가 정보나 자료로서의 의미를 넘어 지식으로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적극적으로 해당 데이터의 결과 값에 접근하고 그에 대한 문제 제기뿐만 아니라 정밀한 조사 및 분석

9) 앞서 언급했듯이 이는 KCI에서 조회되는 자료를 그 기준으로 한다.

10) 2021년 8월 30일 출간 기준.

의 노력이 요구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김수영 문학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는 2013년과 2018년도이다. 그리고 해당 연도는 동시에 전년도 대비 연구 편수 최고 증가치를 기록했다는 공통점을 공유한다.¹¹⁾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는 어떤 요소에 기인한 것일까. 이에 본 연구는 이처럼 김수영 문학 연구와 관련된 흥미로운 현상에 주목하여 ‘별길’에서 조회되는 데이터를 정리하고, 그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특정한 시기(2012-2018년도)에 이루어진 김수영 문학 연구 경향의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문학 연구의 방법론으로서 데이터베이스가 지니는 유용성을 증명하고자 한다.

2. 2012-2018년 김수영 문학 연구 경향의 변화 양상

KCI에서 조회되는 김수영의 문학 연구를 디지털 정보로 가공한 후에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별길’은 논문 주제어 별로 활용된 연구에 대한 일차적인 검색 및 조회가 가능하다. 주지하다시피 논문의 주제어는 해당 논문에 있어서 연구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들을 선별하고 이를 나열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12-2018년도 사이에 각 연도별로 이루어진 연구들의 주제어와 그 경향성 및 차별성을 살펴보기 위해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도별 상위주제어 목록을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한다.

1) 연도별(2012-2018년) 상위주제어 목록

먼저 하단의 연도별 상위주제어 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별길’에서 조회되는 주제어 관련 논문에 대한 설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별길’은 김수영 문학 연구를 주제별로 분류하기 위해 각 논문의 주제어를

11) <표 1>의 그래프를 보면 2001-2002년도 또한 전년도 대비 최고 증가치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해당 시기의 전체 연구 편수는 각각 3편, 10편에 불과하므로 관련 논의 과정에서 제외되었다.

활용한 데이터베이스다. 즉, ‘별길’은 각 논문의 주제를 파악 및 분류하기 위해 최소 단어를 활용하여 논문 주제어를 분류한다. 이때 최소 단어는 형태소 분석기를 활용해 어근을 추출하고 불용어를 처리 및 정리함으로써 설정되었고 김수영 문학과 관련해 모든 논문을 대상으로 각 주제어를 전체 연구 목록 데이터에 도입함으로써 특정 주제어가 논문에 몇 번 등장했는지를 제시한다. 여기서 이렇게 해당 데이터베이스가 최소 단어를 활용해 주제어를 선별하는 이유는 국어국문학의 논문 주제어가 하나의 단어로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 논문의 주제어가 1) 근대의 주체, 2) 근대의 사랑, 3) 자유 의식, 4) 참여 의식이라면, A 논문의 주제를 ‘근대의 주체’로 설정했을 때, B 논문에서 ‘근대의 주체’라는 주제어를 그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프로그램은 기계적으로 분류함에 있어서 이를 같은 주제로 분류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앞서 설명했듯이 ‘최소 단어’를 활용한다면 A 논문의 논문 주제어는 ‘근대’, ‘주체’, ‘사랑’, ‘자유’, ‘참여’, 그리고 ‘의식’으로 환산될 수 있고 이는 다른 논문에도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A 논문의 주제어 중 ‘근대’와 ‘의식’이 두 번씩 등장했다는 수량화된 데이터를 참고한다면, 해당 논문은 특히 ‘근대’ 및 ‘의식’이라는 주제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DB에 적용된 논문 주제어 분류 체계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별길’을 통해 검색되는 각 논문의 주제어(key words)에 기반해 조회되는 김수영 문학 연구의 편수를 연도별(2012-2018년)로 정리했다. 즉, 하단의 표는 주제별로 논문편수를 계산한 후에 작성된 연도별 상위주제어 목록이다.¹²⁾

12) 단, 주제어 별로 한 편의 논문만 나오는 경우에는 해당 표의 크기가 너무 커질 것을 우려해 관련 데이터는 표에서 제외시켰다.

<표 2> 연도별(2012-2018) 논문편수 기준 상위주제 목록

2012	논문편수	2013	논문편수	2014	논문편수	2015	논문편수	2016	논문편수	2017	논문편수	2018	논문편수
의식	6	사랑	5	주체	7	자유	4	주체	3	침묵	4	자유	7
정치	5	세계	5	의식	4	장미	4	역사	3	춤	4	문학	7
자유	4	문학	4	윤리	4	사랑	4	문학	3	운동	3	사랑	7
미치	4	의식	4	문학	4	부정	3	불량소	2	소음	3	언어	6
언어	4	현대	4	언어	4	혁명	3	시각성	2	세계	3	운동	4
문학	3	자유	3	나	3	반복	3	미치	2	소리	3	현대	4
시인	3	박인환	3	정치	3	변주	3	의식	2	시각	3	하이데거	4
반사	3	근대성	3	이대용로기	3	죽음	3	번역	2	기술	3	장막	4
시학	3	현대성	3	사상	3	부정성	3	혁명	2	공간	3	현대성	4
근대	3	윤리	3	달문	2	불온	3	민주주의	2	자유	2	시론	3
현실	3	주체	3	최인준	2	운동	2	시각	2	예술	2	번역	3
운동	2	생활	3	죽음	2	구조화 원리	2	로버트 로벨	2	나	2	자코메티	3
지식인적 자	2	시학	3	세계	2	시인	2	죽음	2	사물	2	모더니즘	3
의식	2	근대	3	정치	2	생활	2	언어	2	보완성	2	구원	3
현대성	2	의식	3	문학	2	중실성	2	개성화	2	운동의 시	2	절망	3
부정성	2	언어	3	리얼리즘	2	대구	2	비행	2	미치	2	혼재	2
지식인	2	리얼리즘	3	세로움	2	불온성	2	로열	2	천통	2	무르노 시로	2
부정	2	번역	3	불온	2	미치	2	한국전쟁	2	생활	2	마르틴 하이데거	2
캐	2	모더니즘	3	현실	2	주체	2	현실	2	요성	2	세계	2
자의식	2	현대	2	현실	3	권력	2	이미지	2	난민	2	목포	2
현대	2	현실	3	타자	2	언어	2	냉전	2	꽃	2	침묵의 시학	2
의미	2	현상	2	이민	2	박인환	2	인민	2	행식	2	미치	2
근대성	2	죽음	2	4.19	2	의식	2	그림자	2	무의미	2	시학	2
전쟁	2	친근대성	2	모더니즘	2	정치	2	전쟁	2	의미	2	눈	2
내탈김	2	시인	2	연설	2	회기	2	현의	2	주체	2	엘런 테이트	2
혁명	2	상징	2	시론	2	연술 구조	2	백낙청	2	달나라의 창	2	이미지	2
무의식	2	상상력	2	이중언어	2	사건	2	알레고리	2	창의	2	장미	2
송고	2	2.19	2	민중	2	나체	2	이미지	2	이미지	2	요강	2
난해성	2	투쟁	2	미학적 사상	2	리듬	2	모더니티	2	나	2	나	2
미디어	2	개연	2	윌도피어	2	시학	2	역사	2	여행	2	여행	2
시론	2	이이대거	2	모어	2	이상	2	참마시	2	시간	2	반사	2
번역	2	미치	2	직육	2	후천성	2	1960년대	2	희망	2	희망	2
합재성	2	리강	2	현실인식	2	신동엽	2	비행	2	투위	2	투위	2
혼	2	의의	2	인행	2	문학	2	현실	2	말식민주의	2	말식민주의	2
무의미	2	서적	2	신체	2	문학	2	현대	2	순수	2	순수	2
존돈	2	자연	2	이상	2	문학	2	이상	2	일본	2	일본	2
문학	2	대상	2	일레고리	2	문학	2	혁명	2	사르트르	2	사르트르	2
불쾌	2	문학	2	전통	2	문학	2			죽음	2	죽음	2
운동의 시	2	현실성	2							민중	2	민중	2
문자	2	월평	2							소리	2	소리	2
역사	2	1950년대	2							식민주의	2	식민주의	2
		일레고리	2										
		생활세계	2										
		이미지	2										

위의 표를 살펴보자면, 연도별로 상위주제어가 눈에 띄 정도로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특정 연도에서 1-3위를 기록하는 최상위 주제어의 경우, 그 해당 연도 전후로는 관련 주제로 연구된 논문의 편수가 확연하게 적은 수를 기록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2년에 ‘정치’를 주제어로 연구된 논문은 5편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2013년에는 ‘정치’를 주제어로 한 연구가 단 한 편도 출판된 바가 없는 반면 ‘사랑’과 ‘세계’가 각각 최상위 주제어로 등장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에 주목해 연도별(2012-2018년) 논문편수 기준 최상위 주제어 5개(‘정치’, ‘자유’, ‘문학’, ‘사랑’, ‘세계’)를 선별하고, 이에 초점을 맞추어 표를 다시 정리하자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표 3> 연도별(2012-2018년) 최상위 주제어 목록과 논문 편수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정치	5	0	3	2	1	0	0
자유	4	3	0	4	0	2	7
문학	3	4	4	2	3	0	7
사랑	1	5	1	4	0	1	7
세계	0	5	2	0	1	3	0

또한 위의 표를 토대로 연도별로 최상위 주제어에 따른 논문 편수 추이를 그래프로 전환하자 다음과 같은 표가 생성되었다. 해당 그래프를 통해 앞서 언급한 현상을 보다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특히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2013년과 2018년의 경우, 전(前)년도와 비교했을 때 주제어와 관련해 확연한 변화를 기록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2013년에는 ‘정치’를 주제로 한 연구의 비중이 아예 없어지고 ‘사랑’과 ‘세계’를 주제로 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2018년에 해당되는 그래프 곡선은 ‘자유’, ‘사랑’, 그리고 ‘문학’에 대한 주제로 한 연구가 급진적인 상향 곡선을 기록하며 이는 관련 주제에 대한 연구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한다. 이에 그래프에서 발견되는 현상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한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림 2> 연도별(2012-2018년) 최상위 주제어에 따른 논문 편수 추이

2) 최상위 주제어별 연구 목록

위와 같은 연구 경향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 본 연구는 김수영 문학 연구를 1년 단위로 살펴보는 정성적 방법을 통해서 2013-2018년 사이에 이루어진 연구들 간의 미세한 변화를 포착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는 ‘별길’의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별길’에서는 특정 주제어에 따른 일련의 논문들을 하단의 그림처럼 조화가 가능하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베이스 환경에서는 사용자가 해당 다이어그램을 클릭하면 관련 논문 정보가 그림 2처럼 팝업이 되지만 본고에서는 이러한 조작이 불가능하므로 주제군에 따른 논문 정보를 항목마다 목록화하였다.

<그림 3> ‘별길’의 데이터베이스 환경

(1) 정치

2012-2018년 사이에 ‘정치’를 주제로 이루어진 연구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해당 주제어가 최상위 주제어로 등극한 연도(2012년)의 연구 목

록(강조 표시)에 대해 보다 세밀하게 조사한 결과, 신수정(2012)은 한국 문학으로서 김수영 문학이 지니는 정치성(political power)에 주목했으며, 이현승(2012)은 김수영 문학과 정치적 전위성과 관련지은 논문과 시적 방법론을 통해 성취되는 정치적 자유를 각각 발표했다.¹³⁾ 또한 조연정(2012)은 1960년대 김수영의 문학에서 발견되는 탈민족주의적 인식을 ‘정치적 전위’뿐만 아니라 미적 전위의 추구로 확장시킨다.¹⁴⁾ 마지막으로 해당 주제어로 조회되는 논문들 중 제목에 ‘정치’가 포함되는 유일한 논문인 이찬(2012)의 「김수영 시의 ‘언어-문자’ 이미지와 ‘에크리튀르’의 정치학」은 김수영 시에 나타난 ‘언어-문자’ 이미지에 주목해 에크리튀르의 정치학을 규명한다.¹⁵⁾

	제목	저자	연도
1	침단과 전통의 역설 -김수영 전통론의 현대적 재구성	신수정	2012
2	오장환과 김수영 시 비교 연구	이현승	2012
3	김수영 시의 ‘언어-문자’ 이미지와 ‘에크리튀르’의 정치학	이찬	2012
4	김수영 시의 화자 연구	이현승	2012
5	‘시인’으로서 말할 자유, ‘시인’으로서 말하지 않을 자유: 김수영의 탈민족주의적 ‘자유’	조연정	2012
6	시는 어떻게 진보에 기여하는가 -후진성·진보·새로움·시-	강웅식	2014
7	김수영 시의 동시대성과 중단의 미학	이혜원	2014
8	몸의 정치: 윌트 휘트먼과 김수영의 시	김혜영	2014
9	꽃의 시학 - 김수영 시에 나타난 꽃 이미지와 ‘언어의 주권’ -	이영준	2015
10	제3세계로서의 자기 정위(定位)와 신성(神聖)의 발견 - 1960년대 김수영·신동엽 시에 나타난 정치적 상상력	박지영	2015
11	김수영의 전쟁체험과 정치체에 대한 인식의 도정	박지영	2016
12	마야코프스키와 김수영의 정치시: 비교연구를 위한 시론(試論)	이명현	2017
13	김수영 시의 웃음의 정치성	권민자	2018

13) 신수정 (2012). 침단과 전통의 역설 -김수영 전통론의 현대적 재구성. 인문과학연구논총, 33, 87-116; 이현승 (2012a). 김수영 시의 화자 연구. Journal of Korean Culture, 19, 235-257; 이현승 (2012b). 오장환과 김수영 시 비교 연구. 우리문화연구, 35, 381-409.

14) 조연정 (2012). ‘시인’으로서 말할 자유, ‘시인’으로서 말하지 않을 자유: 김수영의 탈민족주의적 ‘자유’. 비평문학, 45, 471-495.

15) 이찬 (2012). 김수영 시의 ‘언어-문자’ 이미지와 ‘에크리튀르’의 정치학. 비교문화연구, 26, 173-200.

(2) 자유

반면, 2012-2018년 사이에 ‘자유’를 주제로 이루어진 연구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해당 주제가 최상위 주제로 등극한 연도(2018년)의 연구 목록(강조 표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들 목록은 김수영 시에서 제시되는 ‘자유’와 ‘사랑’에 대한 추구가 중단의식으로 나타난다고 해석한 연구(김혜영, 2018), 김수영의 『히프레스 문학론』을 중심으로 작가가 언어의 문화와 자유의 의미를 전유한다는 것을 밝힌 연구(곽명숙, 2018), 김수영이 내면의 감정(자기 소외)을 자유에 대한 열망으로 전환시킨다고 분석한 연구(박주택, 2018), 김수영의 시에서 아내와 ‘여편네가 분류되는 원인을 각각 사랑과 ‘자유’의 기저 양상으로 접근한 연구(정치훈, 2018), 특정한 정치적 맥락 속에서 입화의 문학론에서의 언어와 김수영의 시 세계에서 언어(표현의 자유)를 비교 및 분석한 연구(고봉준, 2018), 김수영의 초기 시 세계에서 나타나는 김수영의 전향의 문제를 억압된 자유의 추구하고 관련지은 연구(이중원, 2018), 그리고 초현실주의 관점에서 김수영의 문학론을 고찰하며 해당 관점 속에서 김수영이 문학을 통해 개선하고자 한 자유의 의미를 탐색한 연구(김진희, 2018)로 축약될 수 있다.¹⁶⁾ 그리고 해당 결과는 2012년도에 이루어진 ‘정치’ 관련 논문의 주제가 ‘정치’ 그 자체가 아니라 ‘정치성’, ‘정치적 전위’, ‘정치적 자유’ 또는 ‘정치학’ 등의 주제어에 대한 최소 단어로서의 주제어인 반면, 해당 주제어는 ‘자유’라는 최소 단어가 그 자체로 주제어로 통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된다.

16) 김혜영 (2018). 김수영 시의 중단 의식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73, 55-81; 곽명숙 (2018). 김수영의 문학과 현대 영미시론의 관련양상 (2) - 「히프레스 문학론」과 앨런 테이트 번역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56, 463-496; 박주택 (2018). 김수영 시의 소외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74, 175-207; 정치훈 (2018b). 김수영 시에 나타나는 금기와 위만 구조 연구 - ‘아내’와 ‘여편네’를 중심으로 기호학 연구, 55, 251-279; 고봉준 (2018). 입화와 김수영의 ‘언어관’ 비교 한국문학논총, 80, 253-287; 이중원 (2018). 김수영과 모더니즘— 김수영의 초기 활동과 <後半紀>를 중심으로 시민인문학, 35, 51-86; 김진희 (2018). 김수영의 문학과 초현실주의. 민족문학사연구, 68, 9-45.

	제목	저자	연도
1	미디어를 통해 본 김수영의 시세계 - 대중매체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주영중	2012
2	‘시민’으로서 말할 자유, ‘시인’으로서 말하지 않을 자유: 김수영의 탈 민족주의적 ‘자유’	조연정	2012
3	김수영 시에 나타난 ‘죽음’의 문제 연구	권지현	2012
4	김수영 시의 화자 연구	이현승	2012
5	김수영의 전기시에 드러난 ‘자유’의 지향과 그 한계	박군석	2013
6	김수영 시의 탈현실성과 낭만성	이승규	2013
7	1960년대 『창작과 비평』과 번역의 문화사 - 4·19/한글세대 비평/번역가의 등장과 ‘혁명’의 기획	박지영	2013
8	김수영의 시적 이행의 함의와 초월적 사랑의 윤리	신동옥	2014
9	김수영 시에 나타난 실존주의적 전망의 긍정성	박정근	2015
10	김수영 시의 미의식 연구 - ‘숭고’ 지향성을 중심으로 -	한용국	2015
11	꽃의 시학 - 김수영 시에 나타난 꽃 이미지와 ‘언어의 주권’ -	이영준	2015
12	1950년대 김수영 시의 ‘위대성’ 추구에서 드러난 관점 변화 연구 - R. W. Emerson 사상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류순태	2015
13	이상(李箱)의 시와 초현실주의 시론이 김수영의 후기 시론에 미친 영향 - 「참여시의 정리」(1967)를 중심으로	신형철	2017
14	김수영의 ‘풀의 시학’ 연구 - 「풀」의 해석을 중심으로	장철환	2017
15	김수영 시의 중단 의식 연구	김혜영	2018
16	김수영의 문학과 현대 영미시론의 관련양상 (2) - 「히프레스 문학론」과 앨런 테이트 번역을 중심으로	곽명숙	2018
17	김수영 시의 소외 연구	박주택	2018
18	김수영 시에 나타나는 금기와 위반 구조 연구 - ‘아내’와 ‘여편네’를 중심으로	정치훈	2018
19	임화와 김수영의 ‘언어관’ 비교	고봉준	2018
20	김수영과 모더니즘— 김수영의 초기 활동과 <後半紀>를 중심으로	이중원	2018
21	김수영의 문학과 초현실주의	김진희	2018

(3) 문학

또한 2012-2018년 사이에 ‘문학’을 주제로 이루어진 연구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2018년에 해당 주제로 이루어진 연구 목록(강조 표시)을 조사한 결과, 그 양상은 2012년도 ‘정치’를 주제로 한 연구와 유사했다. 즉, 하단의 목록에서 ‘문학’은 각각의 연구에서 『현대문학』(심선옥, 2018), ‘세계

문학(박수연, 2018), ‘민중문학’(박연희, 2018), ‘순수문학’과 ‘참여문학’(이미나, 2018), ‘한국 전후문학’(방민호, 2018), ‘문학교육’(오연경, 2018), 그리고 ‘히프레스 문학론’(곽명숙)의 최소 단어로서의 주제어였다.¹⁷⁾

	제목	저자	연도
1	한국 현대시 연구의 성과와 전망 - ‘운명’과 ‘혁명’, 왜, 아직도 ‘임화’와 ‘김수영’인가	박지영	2012
2	1950-60년대 냉전문화의 번역과 ‘김수영’	박연희	2012
3	‘시민’으로서 말할 자유, ‘시인’으로서 말하지 않을 자유: 김수영의 탈민족주의적 ‘자유’	조연정	2012
4	1950년대 동양론과 문학장의 절합	김익균	2013
5	1960년대 『창작과 비평』과 번역의 문화사 - 4·19/한글세대 비평/번역가의 등장과 ‘혁명’의 기획	박지영	2013
6	김수영 스토리텔링을 위한 시문試論 - 21세기에 공개된 분단체험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박덕규	2013
7	불가능한 명량, 그 슬픔의 기원 -1960년대 안수길론-	임유경	2013
8	불온시 논쟁에 나타난 문학의 존재론 -이어령의 ‘창조력’과 김수영의 ‘불온성’ 개념의 함의를 중심으로-	류동일	2014
9	‘상상하는 모어’와 그 타자들·김수영과 일본어’의 문제를 통해 본 전후 세대의 언어인식과 언어해방의 불가능성	한수영	2014
10	1970년대 『창작과비평』의 민중시 담론	박연희	2014
11	김수영 시의 ‘발설’과 아이러니적 거인신격	오채운	2014
12	현실주의 시인들의 참여시와 각양(各樣)의 언어관	송희복	2015
13	미디어에 대한 한국시의 인식과 대응	임근택	2015
14	밤의 침묵과 자유의 타수 - 김수영의 해방공간과 임화의 4.19 -	장문석	2016
15	게오르규의 수용과 한국 지성사의 ‘25시’ - 전후문학, 휴머니즘, 실존주의, 문명비판, 반공주의, 어용작가-	이행선	2016

17) 심선옥 (2018). 1950-70년대 난해시 논쟁의 경과와 담론 분석. 반교어문연구, 49, 461-493; 박수연 (2018b). 세계문학, 번역, 미메시스의 시-번역자로서의 김수영-. 한국문화이론과 비평, 22(4), 103-128; 박연희 (2018). 김현과 비술라르-1970년대 김현의 번역과 현대시 비평. 구보학보, 20, 451-479; 이미나 (2018). 김수영 산문에 나타난 ‘불온’의 논리 고찰. 인문사회 21, 9(6), 899-912; 방민호 (2018). 전후의 이어령 비평과 하이데거적 실존주의. 이화어문논집, 44, 119-143; 오연경 (2018). 문학교육을 통한 김수영의 정전화와 장르 이데올로기. 민족문학사연구, 68, 47-70; 곽명숙 (2018). 김수영의 문학과 현대 영미시론의 관련양상 (2) - 「히프레스 문학론」과 앨런 테이트 번역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56, 463-496.

16	민족문학론의 인식 구조 - 1960~70년대 백낙청의 김수영론에 대한 비판적 독해 -	강동호	2016
17	1950~70년대 난해시 논쟁의 경과와 담론 분석	심선옥	2018
18	세계문학, 번역, 미메시스의 시·번역자로서의 김수영-	박수연	2018
19	김현과 비슬라르-1970년대 김현의 번역과 현대시 비평	박연희	2018
20	김수영 산문에 나타난 ‘불온’의 논리 고찰	이미나	2018
21	전후의 이어령 비평과 하이데거적 실존주의	방민호	2018
22	문학교육을 통한 김수영의 정전화와 장르 이태올로지	오연경	2018
23	김수영의 문학과 현대 영미시론의 관련양상 (2) - 「히프레스 문학론」과 앨런 테이트 번역을 중심으로	곽명숙	2018

(4) 사랑

그리고 2012-2018년 사이에 ‘사랑’을 주제로 이루어진 연구의 목록은 다음과 같은데, 해당 주제어 역시 앞서 살펴본 ‘자유’(2018)를 주제로 한 연구들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먼저 2013년도에 이루어진 연구를 살펴보면, 이승규(2013)는 김수영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시학에 대해 탐구하고, 김문주(2013)는 김수영의 시에서 시적 주체로서의 아내가 ‘사랑’과 성에 대한 테마 안에서 전략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하며, 오연경(2013)은 김수영의 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그 ‘사랑’의 시학의 핵심을 규명한다. 나아가 전병준(2013)은 김수영 시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문제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비판하면서 해당 개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안하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김수영의 시와 월트 휘트먼의 작품에서 제시되는 ‘사랑의 이미지리’를 비교 분석한 오영진(2013)의 연구를 제외하면 모두 ‘사랑’을 주제어 그 자체로 채택하고 있다.¹⁸⁾

또한 2018년에는 정치훈(2018)이 김수영의 시에서 아내와 여편네가 분류

18) 이승규 (2013). 김수영 시의 탈현실성과 낭만성. 우리어문연구, 46, 359-387; 오영진 (2013). 김수영과 월트 휘트먼 비교연구. 국제어문, 58, 487-532; 김문주 (2013). 김수영 시의 성(性)의 정치학. 우리어문연구, 45, 371-392; 오연경 (2013). 김수영의 사랑과 도래할 민주주의. 민주주의와 인권, 13(1), 81-110; 전병준 (2013). 김수영 초기 시에서 사랑의 의미화 과정 연구. Journal of Korean Culture, 22, 183-207.

되는 원인을 각각 사랑과 자유의 기저 양상으로 접근한 연구와 김수영의 시 「겨울의 사랑」에서 제시되는 사랑의 양상을 살펴본 연구를 각각 발표했으며, 김혜영(2018)은 김수영 시에서 제시되는 ‘자유’와 ‘사랑’에 대한 추구가 중단 의식으로 나타난다고 해석한다. 아울러 박수연(2018)은 김수영 시 「눈」과 「사랑」에 대한 이해는 그의 작품에 대한 실증적 탐구를 기초로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임동확(2018)은 김수영의 시에서 사랑이라는 정서가 설움에 기인한다고 제시한다. 이는 김수영의 시 「사랑의 변주곡」과 「사랑의 공동체」를 각각 주제로 설정한 신동욱(2018)의 연구와 김수이(2018)의 연구를 제외하면 전부 ‘사랑’을 논문의 주제로 사용하고 있다.¹⁹⁾

	제목	저자	연도
1	김수영 시의 시간의식 연구	함돈균	2012
2	김수영 시의 탈현실성과 낭만성	이승규	2013
3	김수영과 월트 휘트먼 비교연구	오영진	2013
4	김수영 시의 성(性)의 정치학	김문주	2013
5	김수영의 사랑과 도래할 민주주의	오연경	2013
6	김수영 초기 시에서 사랑의 의미화 과정 연구	전병준	2013
7	김수영의 시적 이행의 함의와 초월적 사랑의 윤리	신동욱	2014
8	보편성과 심미적 가상 그리고 공동체 - 백석과 김수영의 시에 나타난 ‘사랑의 현상학’을 중심으로 -	조강석	2015
9	혁명을 상속하는 언어, 사랑을 만드는 기술 : 김수영 시에 대하여	복도훈	2015
10	김수영 시의 미의식 연구 - ‘승고’ 지향성을 중심으로 -	한용국	2015

19) 정치훈 (2018b). 김수영 시에 나타나는 금기와 위반 구조 연구 - ‘아내’와 ‘여편네’를 중심으로. 기호학 연구, 55, 251-279; 김수이 (2018). 김수영의 “소음의 철학”과 ‘사랑’의 연관성 - 소음은 어떻게 사랑이 되는가 -. 현대문학이론연구, 75, 55-83; 정치훈 (2018a). 개정판 『김수영 전집』에 수록된 「겨울의 사랑」의 의미. 우리말글, 79, 255-279; 김혜영 (2018). 김수영 시의 중단 의식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73, 55-81; 박수연 (2018a). 강요된 개성과 미완의 보편 - 김수영의 「눈」과 「사랑」에 대한 교육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78, 211-242; 신동욱 (2018). 김수영 시에 나타난 감정 전유의 논리 - 「사랑의 변주곡」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66, 319-355; 임동확 (2018). 근본기분으로서 “설움”과 “절망”의 변주곡 - 하이데거 관점으로 본 김수영의 시세계. 국제한인문학연구, 21, 107-136.

11	『창작과 비평』과 김수영	임지연	2015
12	김수영과 릴케의 사랑 시에 정립된 시적 진리로서 하이데거의 ‘사랑’ - 존재	홍순희	2016
13	김수영의 시와 속도의 정치학	여태권	2017
14	김수영 시에 나타나는 금기와 위반 구조 연구 - ‘아내’와 ‘여편네’를 중심으로	정치훈	2018
15	김수영의 “소음의 철학”과 ‘사랑’의 연관성 - 소음은 어떻게 사랑이 되는가 -	김수이	2018
16	개정판 『김수영 전집』에 수록된 「겨울의 사랑」의 의의	정치훈	2018
17	김수영 시의 중단 의식 연구	김혜영	2018
18	강요된 개성과 미완의 보편 - 김수영의 「눈」과 「사랑」에 대한 교육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박수연	2018
19	김수영 시에 나타난 감정 전유의 논리 - 「사랑의 변주곡」을 중심으로	신동욱	2018
20	근본기분으로서 “설움”과 “절망”의 변주곡 - 하이데거 관점으로 본 김수영의 시세계	임동확	2018

(5) 세계

마지막으로 2012-2018년 사이에 ‘세계’를 주제로 이루어진 연구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흥미로운 점은 2013년에 박군석(2013)이 해당 연도에 김수영 문학과 ‘생활세계’를 주제로 논문 3편을 발표하면서 김수영과 세계 관련 연구에 기여했다는 점이다.²⁰⁾ 그 외에는 오형엽(2013)과 유영희(2013)가 각각 ‘다른 세계’와 ‘시 세계의 확장’을 논문의 주제로 선정했다.²¹⁾

	제목	저자	연도
1	김수영의 시에 나타난 ‘죽음’의 의미	박군석	2013
2	김수영 시의 반복과 변주 연구	오형엽	2013
3	김수영의 시 쓰기와 시 세계	유영희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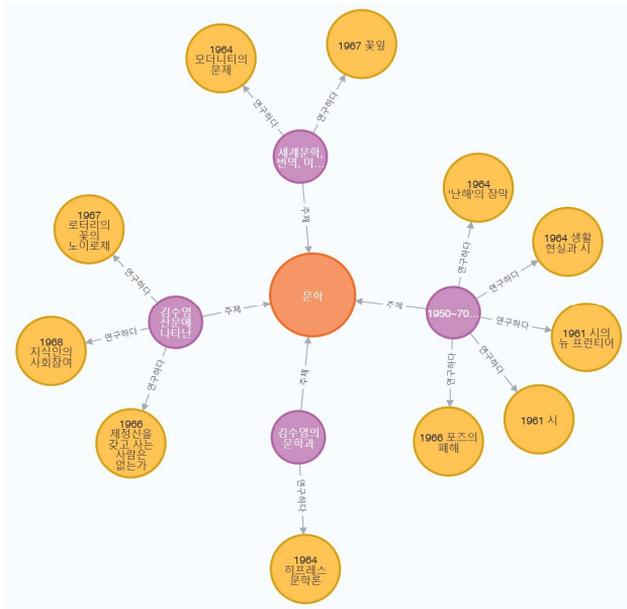
20) 박군석 (2013a). 김수영의 시에 나타난 ‘죽음’의 의미. 한국문학논총, 64, 119-168; 박군석 (2013b). 김수영의 전기시에 드러난 ‘자유’의 지향과 그 한계. 동남어문논집, 1(36), 119-154; 박군석 (2013c). 김수영이 발견한 ‘새로운 현실-후기시’를 중심으로. 배달말, 53, 249-287.

21) 오형엽 (2013). 김수영 시의 반복과 변주 연구. 한국언어문화, 51, 57-80; 유영희 (2013). 김수영의 시 쓰기와 시 세계. 우리말글, 59, 151-182.

4	김수영의 전기시에 드러난 '자유'의 지향과 그 한계	박군석	2013
5	김수영이 발견한 '새로운 현실'·후기시를 중심으로	박군석	2013
6	'사운드스케이프 문화론'에 대한 시고	임태훈	2014
7	김수영 시의 '발설'과 아이러니적 거인신격	오채운	2014
8	제3세계로서의 자기 정위(定位)와 '신성(神聖)'의 발견 - 1960년대 김수영·신동엽 시에 나타난 정치적 상상력	박지영	2015
9	게오르규의 수용과 한국 지성사의 '25시' - 전후문학, 휴머니즘, 실존주의, 문명비판, 반공주의, 어용작가-	이행선	2016
10	『청맥』의 제3세계적 시각과 김수영의 민족문학론	박연희	2017
11	실존적 사유를 통한 김수영 시 읽기 방법	오정훈	2017
12	김수영과 뢰트케의 고백시에 나타난 자연	진은경	2017
13	김수영의 문학과 현대 영미시론의 관련양상 (2) - 「히프레스 문학론」과 앨런 테이트 번역을 중심으로	곽명숙	2018
14	세계문학, 번역, 미메시스의 시·번역자로서의 김수영-	박수연	2018

3) 연도/주제어/연구 작품 비교분석

위처럼 본 연구는 2012-2018년도에 이루어진 연구를 최상위 주제어별로 정리하고 직접 각 연구의 주제어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았으며, 본 절에서는 각 주제어별로 활발히 연구된 김수영의 작품 목록을 검토함으로써 각 연구 간의 관계성에 대해 분석한다. 이때 분석의 대상이 되는 주제어는 정치(2012년), 사랑(2013년, 2018년), 세계(2013년), 자유(2018년)로 사랑의 경우, 두 번에 걸쳐 최상위 주제어에 등극했는데 두 시기 간에 발견될 수 있는 차이를 살펴보고자 각각의 시기를 분류해 분석을 시행한다. 그러나 문학(2018년)의 경우, 아래의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각각의 연구가 공유하는 김수영의 작품이 없어 어떤 관계성을 도출할 수 없기 때문에 본 분석의 대상에서는 제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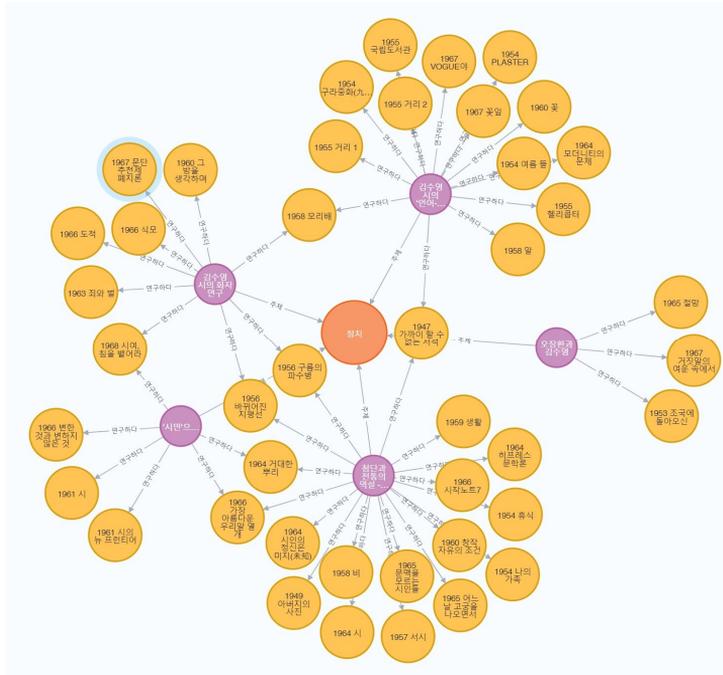


<그림 4> '문학'을 주제로 연구된 논문과 김수영 작품(2018년 기준)

해당 분석을 위해 필자는 ‘별길’의 데이터베이스 환경에서 특정 연도와 키워드를 입력했을 때 사용자가 실제로 조회할 수 있는 일차적인 데이터들의 결과 값을 각각의 분석에 이용한다. 그리고 각 데이터의 결과 값은 노드와 엣지로 이루어진 그림으로 조회될 수 있는데, 본 분석은 이처럼 시각화된 네트워크 정보를 설명함으로써 특정 연도에 특정 키워드로 연구된 김수영 문학 연구들을 파악한다. 구체적으로 ‘별길’은 향후 확장성, 관계 탐색 그리고 여러 테이블을 경유할 복잡한 질의를 상징하여 노드(점, Node)와 엣지(선, Edge)로 이루어진 그래프 DB로 구성되어 있는데, ‘별길’의 노드는 김수영 연구 논문을 중심으로 크게 학술지 정보, 저자 정보, 김수영의 시와 산문, 인용 정보, 주제어 정보 등 다섯 개의 정보로 분류되어 있다. 이때 각 논문에서 연구된 김수영의 시와 산문의 경우, 관련 데이터는 일반적인 학술 DB에서 따로 조회될 수 없기 때문에 연구팀에 의해 논문별 연구 대상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수록되었

다.22) 이후 해당 정보에 신다, 인용하다, 연구하다 등 다양한 엷지를 구성해 이를 각각의 노트에 연결함으로써 각 논문과 작품의 포괄관계를 상정했다. 그리고 이렇게 ‘별길’에 특정 주제어를 검색했을 때 도출되는 데이터를 대략적으로 설명하자면, 특정 키워드는 가장 중심에 있는 주홍색 노트로 표시되며, 이러한 키워드를 공유하는 각각의 논문은 엷지를 통해 보라색 노트로 연결되고, 그 각각의 논문이 연구한 김수영 작품은 다시 노란색 노트로 연결된다.

(1) ‘정치’를 주제로 연구된 김수영 작품 목록(2012)



<그림 5> ‘정치’를 주제로 연구된 논문과 김수영 작품(2012년 기준)

22) 즉, 어떤 작품이 논문의 주요 연구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연구자의 개인적인 분석이 포함된 경우, 해당 작품은 연구 대상 목록에 포함되었으나 단순히 열거되거나 언급만 된 작품은 연구 대상 목록에서 제외되었다.

위의 <그림 5>에 제시된 결과 값에 대해 설명하자면, 2012년도에 ‘정치’(주홍색 노드)를 주제로 연구된 논문 5편은 1945년에서부터 1968년도 작품에 이르기까지 연도별로 다양한 작품을 그 연구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이 중 2편 이상이 공통적으로 분석한 김수영의 작품 목록은 「가까이 할 수 없는 서적(1947)」, 「구름의 파수병(1956)」, 「바뀌어진 지평선(1956)」, 그리고 「모리배(1958)」, 「거대한 뿌리(1964)」, 「가장 아름다운 우리말 열 개(1966)」로 시기적으로 봤을 때 김수영의 초·중기의 시가 그 공통된 분석 대상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정치’라는 주제어에 묶인 연구들과 연구대상이 된 김수영의 작품에 대한 각각의 분석을 면밀히 살펴본 바, 먼저 「모리배(1958)」는 해당 시편에서 김수영이 하이데거의 언어관을 수용하며 언어를 실존의 층위에서 고찰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²³⁾ 또한 「구름의 파수병(1956)」, 「바뀌어진 지평선(1956)」를 분석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김수영의 시에서 발견되는 ‘배반성’과 ‘반성’이라는 주제에 주목하고 있었다.²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앞서 열거한 연구들이 분석에 이용한 각각의 시편들은 모두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시의 세계를 배신할 수밖에 없는 시인의 무력함에 대한 자기반성과 자기비판의 미학으로 이어진다고 분석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리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서적(1947)」의 경우, 두 명의 연구자가 해당 시에서 ‘제국’ 또는 ‘서구의 현대성’에 대한 시인의 ‘양가적인 감정과 태도’를 지적한다.²⁵⁾ 이렇게 특정 작품을 두고 각각의 연구가 동일한 맥락을 공유하는 반면, 「거대한 뿌리(1964)」의 경우에는 신수정(2012)의 연구가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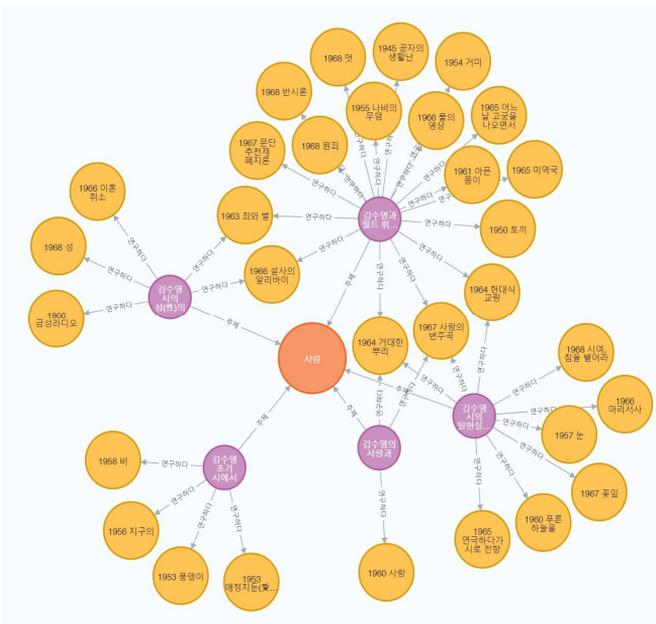
23) 이찬 (2012). 김수영 시의 ‘언어-문자’ 이미지와 ‘에크리튀르’의 정치학. 비교문화연구, 26, 173-200; 이현승 (2012a). 김수영 시의 화자 연구. Journal of Korean Culture, 19, 235-257.

24) 신수정 (2012). 첨단과 전통의 역설 -김수영 전통론의 현대적 재구성. 인문과학연구논총, 33, 87-116; 이현승 (2012a). 김수영 시의 화자 연구. Journal of Korean Culture, 19, 235-257.

25) 신수정 (2012). 첨단과 전통의 역설 -김수영 전통론의 현대적 재구성. 인문과학연구논총, 33, 87-116; 이찬 (2012). 김수영 시의 ‘언어-문자’ 이미지와 ‘에크리튀르’의 정치학. 비교문화연구, 26, 173-200.

시의 주요 테마인 ‘전통’과 ‘추억’에 초점을 맞추는 데에 반해 조연정(2012)의 연구는 ‘전통’과 ‘민중’에 대한 해석보다는 김수영의 ‘수단이 아닌 잠재적 의미로서의 개별적인 언어’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해석의 측면에 차이가 있었다.²⁶⁾

(2) ‘사랑’을 주제로 연구된 김수영 작품 목록(2013)



<그림 6> ‘사랑’을 주제로 연구된 논문과 김수영 작품(2013년 기준)

이 역시 <그림 6>을 참고하면, ‘사랑’을 주제로 연구된 논문의 분석 대상은 주로 김수영의 1960년대 작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김수영 초기 시에서 사랑의 의미화 과정 연구」(2013)만이 제목처럼 1950년대 김수영

26) 신수정 (2012). 첨단과 전통의 역설 -김수영 전통론의 현대적 재구성. 인문과학연구논총, 33, 87-116; 조연정 (2012). ‘시민’으로서 말할 자유, ‘시인’으로서 말하지 않을 자유: 김수영의 탈 민족주의적 ‘자유’. 비평문학, 45, 471-495.

영 시에 한정해 특정 주제를 분석함에 따라 주제어 면을 제외하고는 다른 연구들과의 연관성은 깊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결과적으로 해당 논문 5편 중 2편 이상이 공통적으로 연구한 바 있는 김수영 작품은 「죄와 벌(1963)」, 「거대한 뿌리(1964)」, 「현대식 교량(1964)」, 「사랑의 변주곡(1967)」, 그리고 「설사의 알리바이(1966)」로 조회된다.

나아가 각 논문별로 김수영의 작품에 대한 분석을 살펴본 결과, 오영진(2013)과 이승규(2013)은 세 작품을 공유하며 가장 높은 관계성을 보이는데, 먼저 해당 연구들은 「사랑의 변주곡(1967)」에 대해 각각 비교문학(오영진, 2013)과 낭만적 예술관의 관점(이승규, 2013)에서 분석하고 있다.²⁷⁾ 구체적으로 오영진(2013)은 김수영의 시에서 나타나는 사랑에 대한 ‘수평적 펼쳐진 이미지리’가 월트 휘트먼의 고유 양식인 카탈로그식 열거를 비교하며 두 시인 간의 영향 관계를 증명하고자 시도하며, 이승규(2013)는 해당 시에서 발견되는 낭만성은 낭만성 그 자체로 현실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추구되는 개념이라고 평하고 김수영의 낭만적 예술관이 대극적 관계에 놓인 개념들을 어떻게 하나로 융합시키는가에 대해 고찰한다.²⁸⁾ 즉, 두 논문은 해당 시에서 드러나는 ‘사랑’이라는 주제를 시인의 주제의식과 연관 지어 그 시화에 대해 분석한다는 공통점이 보이지만 연구 목적에서 차이를 보인다. 반면 「현대식 교량(1964)」에 경우, 이승규(2013)는 시 전체를 인용하며 시적 자아와 사랑에 대한 실증과 표상에 대해 분석하는데, 오영진(2013)은 해당 시의 일부 구절을 인용해 김수영의 시에서 옷을 벗는 행위의 의미를 짧게 분석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²⁹⁾

이에 더해 「거대한 뿌리(1964)」는 이 시기에 가장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된 작품으로 제시된다. 위에서 언급한 오영진(2013)과 이승규(2013)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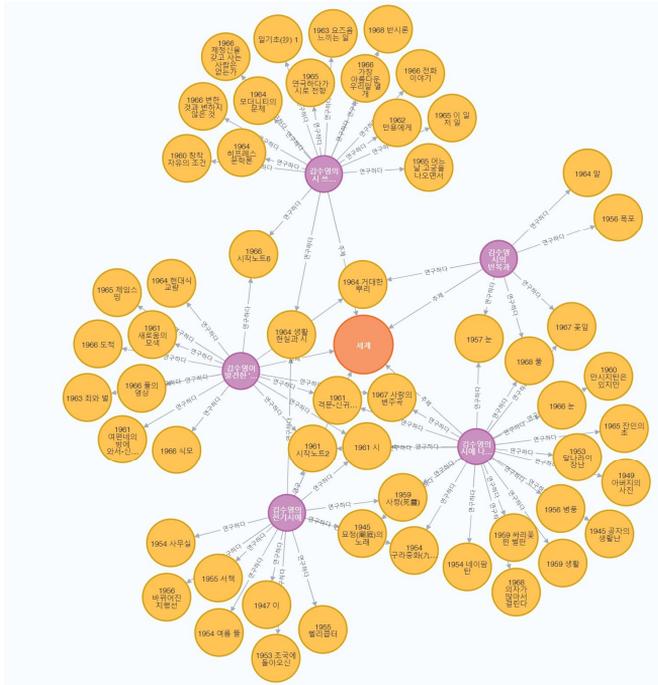
27) 오영진 (2013). 김수영과 월트 휘트먼 비교연구. 국제어문, 58, 487-532; 이승규 (2013). 김수영 시의 탈현실성과 낭만성. 우리어문연구, 46, 359-387.

28) 위의 논문.

29) 위의 논문.

만 아니라 오연경(2013)도 해당 시를 분석하고 있는데, 앞서 두 연구자는 각각 시에서 발견되는 육체의 개념(오영진, 2013), 그리고 역사와 전통에 대한 김수영의 관념적 지향성과 탈현실성에 대해 고찰(이승규, 2013)하는 반면, 오영진(2013)은 해당 시에서 시적 주체와 정치-미학적 실천 양상에 대해 분석한다.³⁰⁾

(3) ‘세계’를 주제로 연구된 김수영 작품 목록(2013)



<그림 7> ‘세계’를 주제로 연구된 논문과 김수영 작품(2013년 기준)

‘세계’를 주제로 연구된 논문이 공통적으로 분석하는 김수영 작품의 목

30) 오영진 (2013). 김수영과 월트 휘트먼 비교연구. 국제어문, 58, 487-532; 이승규 (2013). 김수영 시의 탈현실성과 낭만성. 우리어문연구, 46, 359-387; 오연경 (2013). 김수영의 사랑과 도래할 민주주의. 민주주의와 인권, 13(1), 81-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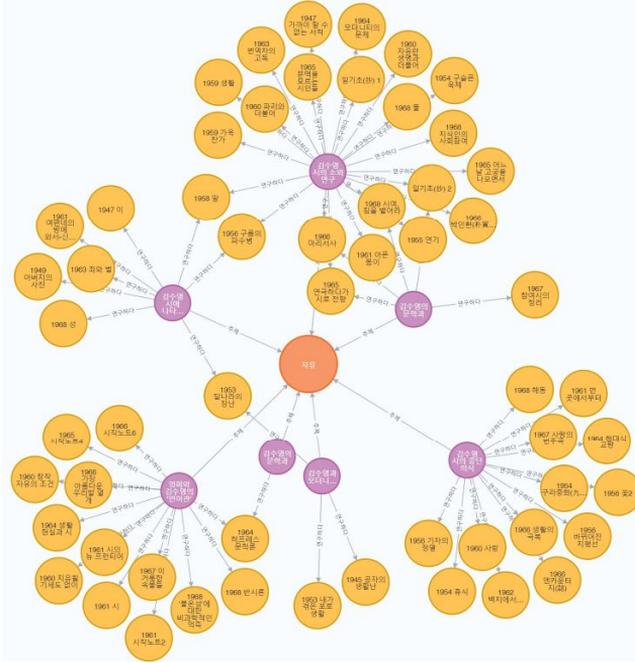
록은 위의 예시들과 비교했을 때, 작품군이 더 다양하게 산출되었다. 이 중 2편의 논문에서 공통적으로 연구된 김수영의 작품은 「묘정(廟庭)의 노래(1945)」, 「구라중화(1954)」, 「눈(1957)」, 「사령(死靈)(1959)」, 「시(1961)」, 「시작노트2(1961)」, 「생활 현실과 시(1964)」, 「시작노트6(1966)」, 「꽃잎(1967)」, 「사랑의 변주곡(1967)」, 그리고 「풀(1968)」이다. 특히 「격문-신귀거래2(1961)」과 「거대한 뿌리(1964)」는 세 편의 논문에서 분석되었다.

앞서 이 시기에 박군석(2013)이 ‘생활세계’를 주제로 논문 3편³¹⁾을 발표한 바 있다고 언급했는데, 그림 7에서 나타나는 관계망을 참고했을 때, 다른 연구자들의 논문과의 관계성에 비해 높은 관계성이 발견되었다. 다만 흥미로운 점은 ‘김수영’과 ‘생활세계’를 주제어로 설정하고 있고 동일한 연구자에 의해 수행된 「김수영이 발견한 ‘새로운 현실’-후기시를 중심으로」(2013)와 「김수영의 전기시에 드러난 ‘자유’의 지향과 그 한계」(2013) 간에는 서로 공유하는 김수영의 작품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언급한 논문들은 「김수영의 시에 나타난 ‘죽음’의 의미」(2013)와 각각 4편 이상의 작품을 공유하며 밀접한 관계성을 보이는데, 각 논문의 주제어를 살펴본 결과, 「김수영의 시에 나타난 ‘죽음’의 의미」는 「김수영이 발견한 ‘새로운 현실’-후기시를 중심으로」와 ‘김수영’, ‘생활세계’ 외에도 ‘무(無)’라는 주제어를 공유하고 있었고 「김수영의 전기시에 드러난 ‘자유’의 지향과 그 한계」와는 ‘근대성’이라는 키워드를 공유하고 있었다.³²⁾

31) 박군석 (2013a). 김수영의 시에 나타난 ‘죽음’의 의미. 한국문학논총, 64, 119-168; 박군석 (2013b). 김수영의 전기시에 드러난 ‘자유’의 지향과 그 한계. 동남어문논집, 1(36), 119-154; 박군석 (2013c). 김수영이 발견한 ‘새로운 현실’-후기시를 중심으로. 배달말, 53, 249-287.

32) 위의 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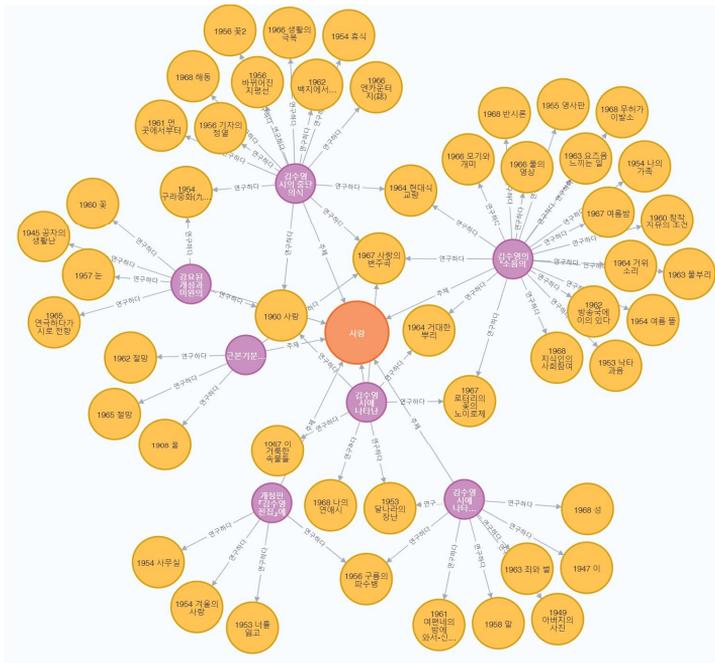
(4) ‘자유’를 주제로 연구된 김수영 작품 목록(2018)



<그림 8> ‘자유’를 주제로 연구된 논문과 김수영 작품(2018년 기준)

앞서 설명했듯이 해당 연구들은 모두 ‘자유’라는 공통된 주제어를 채택하고 있으나 각 연구 간의 관련성은 다소 적은 것으로 관찰된다. 다만 흥미로운 점은 「김수영 시의 소외 연구」와 「김수영의 문학과 현대 영미시론의 관련양상 (2) - 『히프레스 문학론』과 앨런 테이트 번역을 중심으로」 간의 관련성인데, 해당 연구들은 「연기(1955)」, 「일기초2(1960-1961)」, 「아픈 몸이(1961)」, 「연극하다가 시로 전향(1965)」, 「마리서사(1966)」, 그리고 「시여, 침을 뱉어라 (1968)」까지 총 6편에 달하는 작품을 공유함으로써 주제적인 측면에서나 분석적인 측면에서나 그 관련성이 다른 연구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5) '사랑'을 주제로 연구된 김수영 작품 목록(2018)



<그림 9> '사랑'을 주제로 연구된 논문과 김수영 작품(2018년 기준)

마지막으로 위의 그림 9를 살펴보면, 김수영의 시 「사랑의 변주곡(1967)」과 7편의 논문 중 4편에서 공통적으로 연구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외에 「장난(1953)」, 「거대한 뿌리(1964)」, 「교량(1964)」, 그리고 「꽃의 노이로제(1967)」가 각각 2편씩 공통적으로 분석되었는데, 2013년도에 동일한 주제로 연구된 논문들과 비교했을 때 그 분석 대상 목록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같은 주제로 연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는 이전에 비해 「사랑의 변주곡(1967)」과 「사랑(1960)」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도가 다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III. 결론

디지털 정보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관련 방법론이 부상하고 학계 안에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디지털 시대의 인문학에 접근하는 새로운 문화적 형식으로서 ‘데이터베이스’는 현재 그 구축과 관련해 여러 사업 및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이는 연구자에 의한 주제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2021년에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연구팀에서 개발한 김수영 문학 연구 DB인 ‘별길’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김수영 문학 연구와 관련된 자료와 통계를 조회한다. 그리고 그 결과, 2013년과 2018년도에 각각 전년도 대비 연구 편수가 급상승한 수치를 기록한 현상에 주목해 해당 연도 사이에 이루어진 김수영 문학 관련 연구 경향과 그 변화 양상을 다각도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보고는 DB에 적용된 논문 주제어 분류 체계를 바탕으로 ‘별길’을 통해 검색되는 각 논문의 주제어에 기반해 조회되는 김수영 문학 연구의 편수를 연도별(2012-2018년)로 정리하고, 특정 연도에서 1-3위를 기록하는 최상위 주제어의 경우에 해당 연도 전후로는 관련 주제로 연구된 논문의 편수가 확연하게 적은 편수의 논문이 기록되는 현상을 발견한다. 특히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2013년과 2018년의 경우, 전(前)년도의 상위 주제어와 전혀 다른 주제어가 최상위 주제어로 등장한 것에 의구심을 가지고 2012-2018년도 사이에 이루어진 최상위 주제어별 연구 목록을 작성한다. 나아가 ‘별길’에서 조회되는 논문을 세밀히 살펴봄으로써 주제어별로 관련 논문의 구체적인 주제를 파악하고 각 주제어별로 활발히 연구된 김수영의 작품 목록을 검토함으로써 각 연구 간의 관계성에 대해 분석한다. 그 결과, 같은 주제로 연구가 진행된 연구더라도 김수영의 특정 작품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도가 최근에 들어 다소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전체적인 경향성은 연구자들이 의도적으로 이전 연도의 연구 주제를 의식하여 기존 선행연구의 주제와 중복되지 않는

주제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본 연구가 추출한 데이터는 기존 연구의 주제를 기피하려는 연구자들의 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추측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 역시 존재한다. 다름 아닌 ‘별길’이 현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있으나 특정한 컴퓨터에서만 조회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다. DB는 서재처럼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곳이고 이러한 DB를 일반 이용자들이 접근 가능하게 하려면 웹사이트 페이지에 해당 DB를 웹사이트 운영 서버에 해당 DB를 이동시켜야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DB는 국가나 대학 차원에서 구축된 DB가 아니기에 웹사이트 호스팅(인터넷상 주소 등 설정)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운영 서버 구축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가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특정 DB의 구축과 그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른 사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가장 큰 연구적 한계를 지닌다. 또한 본 연구는 김수영 문학과 관련 논문만이 수록된 데이터베이스만을 연구의 자료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특정 연도에 연구가 증가한 외부적 요인은 해당 분석에서 제외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2013년 3월에 김현경 여사에 의해 김수영 시인의 회고록 『김수영의 연인』³³⁾이 출간됨에 따라 연구자들 사이에서 김수영의 문학과 ‘사랑’에 대한 주제가 새롭게 재조명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이처럼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정보는 본 분석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제약이 있다.

그러나 여전히 본 연구는 데이터를 통해 김수영 연구의 현황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 데이터를 토대로 특정한 현상을 정성적인 방법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문학 연구사 연구와 차별된다. 나아가 그러한 특정 현상에 대한 설명과 분석에 대한 주장에 수량화된 데이터가 그 근거로 제시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문학 연구사 연구와 차별화된다. 구체적으로 본고는 현대문학에서 상대적으로 경시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함으로써

33) 김현경 (2013). 김수영의 연인 (김현경 에세이). 책읽는오두막.

김수영 연구 경향성과 관련된 현상을 발견하고 이를 온톨로지를 통해 시각화해 분석함으로써 연구 자료로서의 데이터베이스의 실효성을 입증하고자 시도했다. 즉, 한 시인이 남긴 텍스트 전체와 이와 관련된 논문을 DB로 만들어 정량적 문학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이 사례의 의미를 거시적 연구사의 측면에서 경험적으로 규명하려 했다는 점에서 그 연구사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 인문학 방법론을 이용한 연구가 단순히 실증적인 방법론으로서의 측면만이 강조되는 방법론은 아니다. 본 연구는 정량적인 DB에서 대상 연구간 관계를 검색했지만 이 관계성을 살펴보는 방식에 있어서는 정성적 방식을 채택한다. 그리고 특정 시기에 이루어진 각 논문들의 직접적인 관계나 각 논문들이 공유하는 맥락을 도출하기 위해 직접 각각의 논문에 얽힌 관계성과 맥락을 파악한다. 즉, 디지털 인문학 방법론이란 하나의 사례를 통해 이전에 발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현상을 발견하게 하고, 특정 사례가 기존의 문학연구사 연구와 어떤 지점에서 접속될 것인가에 대한 인문학적 상상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방법론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김수영, 디지털 인문학, 데이터베이스, DB 구축, 문학연구사, 정량 분석

[참고문헌]

- 고봉준 (2018). 임화와 김수영의 ‘언어관’ 비교. 한국문학논총, 80, 253-287.
- 김문주 (2013). 김수영 시의 성(性)의 정치학. 우리어문연구, 45, 371-392.
- 김수이 (2018). 김수영의 “소음의 철학”과 ‘사랑’의 연관성 – 소음은 어떻게 사랑이 되는가 –. 현대문학이론연구, 75, 55-83.
- 김진희 (2018). 김수영의 문학과 초현실주의. 민족문학사연구, 68, 9-45.
- 김혜영 (2018). 김수영 시의 중단 의식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73, 55-81.
- 곽명숙 (2018). 김수영의 문학과 현대 영미시론의 관련양상(2) - 「히프레스 문학론」과 앨런 테이트 번역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56, 463-496.
- 박군석 (2013a). 김수영의 시에 나타난 ‘죽음’의 의미. 한국문학논총, 64, 119-168.
- 박군석 (2013b). 김수영의 전기시에 드러난 ‘자유’의 지향과 그 한계. 동남어문논집, 1(36), 119-154.
- 박군석 (2013c). 김수영이 발견한 ‘새로운 현실’-후기시를 중심으로. 배달말, 53, 249-287.
- 박수연 (2018a). 강요된 개성과 미완의 보편 - 김수영의 「눈」과 「사랑」에 대한 교육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78, 211-242.
- 박수연 (2018b). 세계문학, 번역, 미메시스의 사-번역자로서의 김수영.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2(4), 103-128.
- 박연희 (2018). 김현과 바슐라르 – 1970년대 김현의 번역과 현대시 비평. 구보학보, 20, 451-479.
- 박주택 (2018). 김수영 시의 소외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74, 175-207.
- 박현숙 (2019). 설화 아카이브의 현황 분석과 활용 방안. 구비문학연구, 55, 209-251.
- 방민호 (2018). 전후의 이어령 비평과 하이데거적 실존주의. 이화어문논집, 44, 119-143.
- 신동옥 (2018). 김수영 시에 나타난 감정 전유의 논리 - 「사랑의 변주곡」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66, 319-355.
- 신수정 (2012). 첨단과 전통의 역설 - 김수영 전통론의 현대적 재구성. 인문과학연구논총, 33, 87-116.
- 심선옥 (2018). 1950~70년대 난해시 논쟁의 경과와 담론 분석. 비교어문연구, 49, 461-493.
- 오연경 (2013). 김수영의 사랑과 도래할 민주주의. 민주주의와 인권, 13(1), 81-110.
- 오연경 (2018). 문학교육을 통한 김수영의 정전화와 장르 이데올로기. 민족문학사연구, 68, 47-70.
- 오영진 (2013). 김수영과 윌트 휘트먼 비교연구. 국제어문, 58, 487-532.
- 오형엽 (2013). 김수영 시의 반복과 변주 연구. 한국언어문화, 51, 57-80.

- 유영희 (2013). 김수영의 시 쓰기와 시 세계. *우리말글*, 59, 151-182.
- 이미나 (2018). 김수영 산문에 나타난 ‘불온’의 논리 고찰. *인문사회* 21, 9(6), 899-912.
- 이승규 (2013). 김수영 시의 탈현실성과 낭만성. *우리어문연구*, 46, 359-387.
- 이중원 (2018). 김수영과 모더니즘— 김수영의 초기 활동과 <後半紀>를 중심으로. *시민인문학*, 35, 51-86.
- 이찬 (2012). 김수영 시의 ‘언어-문자’ 이미지와 ‘에크리튀르’의 정치학. *비교문화연구*, 26, 173-200.
- 이현승 (2012a). 김수영 시의 화자 연구. *Journal of Korean Culture*, 19, 235-257.
- 이현승 (2012b). 오장환과 김수영 시 비교 연구. *우리문화연구*, 35, 381-409.
- 임동환 (2018). 근본기분으로서 “설움”과 “절망”의 변주곡 —하이데거 관점으로 본 김수영의 시세계. *국제한인문학연구*, 21, 107-136.
- 장문석, 류인태 (2021). 디지털 인문학과 한국문학 연구(1) - 작가 연구를 위한 시맨틱 데이터베이스 설계. *민족사학연구*, 75, 347-426.
- 조연정 (2012). ‘시민’으로서 말할 자유, ‘시인’으로서 말하지 않을 자유: 김수영의 탈민족주의적 ‘자유’. *비평문학*, 45, 471-495.
- 전병준 (2013). 김수영 초기 시에서 사랑의 의미화 과정 연구. *Journal of Korean Culture*, 22, 183-207.
- 정치훈 (2018a). 개정판 『김수영 전집』에 수록된 「겨울의 사랑」의 의의. *우리말글*, 79, 255-279.
- 정치훈 (2018b). 김수영 시에 나타나는 금기와 위반 구조 연구 - ‘아내’와 ‘여편네’를 중심으로. *기호학 연구*, 55, 251-279.
- Manovich, L. (2002). *The Language of New Media*. 서정신 옮김 (2014). *뉴미디어의 언어*.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국문초록]

본 연구는 디지털 인문학 방법론을 현대문학 분야에서 문학 및 작가 연구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보고는 문헌 정보와 자료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구조화 및 모델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례를 소개하고 해당 DB에서 조회되는 데이터 사례를 활용해 특정 문학 연구의 연구 경향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소속 연구팀에서 구축한 김수영 문학 연구 DB인 ‘별길’이다. 해당 DB의 구축은 온전히 김수영 문학 연구에 대한 자료가 필요한 사용자의 원활하고 정확한 검색, 즉 사용자의 유용성과 편의성을 목적으로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서 제공하는 검색 서비스를 통해 조회가 가능한 김수영 관련 논문 전반이 수록되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본 연구는 이 구축된 데이터베이스가 단순히 학술적 정보 및 자료의 집합이 아닌 학술적 지식으로서 연구되고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미화 작업을 시도한다.

이에 본 연구는 ‘별길’의 데이터를 조회해 김수영 관련 연구의 역사적·통시적 분석을 실행한다. 그 결과, 김수영 문학 관련 연구는 1985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는데 2013년도와 2018년도에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었다. 나아가 본 연구는 김수영 문학 연구를 1년 단위로 살펴보는 정성적 방법을 통해 2013-2018년 사이에 이루어진 연구들 간의 미세한 변화를 포착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별길이 제공하는 주제어 별 논문 편수를 계산한 후에 연도별로 상위주제어 목록을 제시하고, 최상위 주제어의 경우에 특정 연도 전후로는 관련 주제로 연구된 논문의 편수가 확연하게 적은 편수를 기록하는 현상을 발견한다. 이에 더해 본 연구는 연구의 대상이 된 김수영의 작품을 온톨로지로 엮어 시각화하고 논문들 간의 관계성 및 그것들이 공유하는 맥락을 도출한다.

본 연구의 연구사적 의의는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기존의 통시적 연구사를 디지털 인문학 방법론을 통해 새롭게 조망하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 있다. 특히 현대문학 분야에서는 작가 및 문학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영상 및 대중문화 콘텐츠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해당 방법론을 활용한 관련 연구의 착수가 촉구된다.

[Abstract]

A Research on Utilization of DB in
Literature Study and Author Research

- Focusing on the Data Analysis of DB of Literature Studies on

Kim Soo-young

Kim, Gia (Yonsei University)

Kim, Jae-won (Yonsei University)

Yoo, Theodore Jun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method of using digital humanities methodology for literature and writer research in the field of modern literature. Therefore, this paper introduces cases of database construction in which literature information and data are structured and modeled into a single database and examines the research trends of specific literature research using data cases inquired in the DB.

The database used in this study is "Byul-gil," a Kim Soo-young literature research DB established by a research team affiliated with th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at Yonsei University. The DB was built to contain all the articles related to Kim Soo-young for the user's usefulness and convenience. However, this study does not stop there; it explores how this built database can be studied and utilized as academic knowledge, not just a set of data.

Therefore, we conducted a historical and contemporary analysis of Kim Soo-young's research by inquiring about the data of "Byul-gil."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research on Kim Soo-young's literature started in 1985 and is currently ongoing, but was most actively studied in 2013 and 2018. Furthermore, this study tried to capture the difference between studies conducted between 2013 and 2018 by a qualitative method of examining the study of Kim Soo-young's literature on a yearly basis. To that end, we calculated the number of papers by keyword provided by the database and presented a list of top keywords by year.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list, it was found that in the case of the top-level keyword, the number of papers studied on related topics around a

specific year is small.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provides an opportunity to view existing syntactic researchers through digital humanities methodology in the age of computational turn. In particular, in modern literature, research on not only writers and literature but also images and popular cultural content is continuously carried out, so related research using the methodology is required.

【Keywords】 Kim Soo-young, Digital Humanities, Database, DB, History of Literature Research, Qualitative Analysis

논문투고일: 2022년 2월 27일 / 논문심사일: 2022년 4월 4일 / 게재확정일: 2022년 4월 24일

【저자연락처】 giakim0305@gmail.com, kjone@yonsei.ac.kr, yoojun@yonsei.ac.kr